



[뉴스] '존재감 제로' 제로페이이 예견된 비극 02



Economy

코스피	2175.60 (-3.63)	코스닥	746.70 (-1.25)
금리 (미국 3년)	1.83 (-0.01)	환율 (원-달러)	1128.80 (+3.30) (6일)

오너 3세 '재계 빅3' 달라졌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 사회적 시대 급변 '사회공헌·투명경영' 통해 주주가치 극대화

삼성, SK,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올해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 강화에 나선다.

최근 국내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의결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업들은 투명경영을 통해 브랜드 가치 제고와 미래 경쟁력 확보, 주주가치 극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이 대표적이다.

우선 최태원 회장은 최근 그룹의 지주사인 SK㈜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통상 오너가 겸직해온 기업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과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자리에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이 신임 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SK㈜는 사외이사 수를 늘리기로 했다.

최근 SK㈜는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한 정관내용을 변경해 이사회가 이사 중 한명을 의장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사회 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켜 의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총괄부회장
-----------------	----------------	----------------------

JY, 이사직 내려놔
청소년 교육 테마
미래인재 성장지원

이사회 의장직 분리
사외이사 수 확대
의사결정 투명성 ↑

주주추천제 첫도입
주주들과 적극소통
투명경영팀 설치도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재계에선 이를 두고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경영 철학을 구현하려는 최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 가치 창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사내이사 재선임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2016년 10월 임시 주주총회 때 사내이사였던 이 부회장은 올해 10월 26일 사내이사 3년 임기가 만료된다. 삼성전자 규정상 이사회 임기 만료 전에 재선임을 결정해야

하지만 오는 20일 주총에 상정된 안건에 이 부회장 재선임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 가치 창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사회공헌 새 비전인 '함께 가요 미래로! 인에이블링 피플(Enabling People)'을 발표했다. 임직원들이 고유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회사가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사회공헌의 새 테마로 '청소년 교육'을 제시하고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은 그룹의 지휘봉을 잡은 뒤부터 투명경영과 사회공헌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사외이사 후보 선정 과정에서 주주추천제를 처음 도입했다. 주주권익담당 사외이사를 일반주주들이 추천한 인사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이사회 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끌어올리고 주주들과 적극 소통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015년 4월 국내 대기업 최초로 소액주주를 비롯한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인 '투명경영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016년 2월 '미래를 향한 진정한 파트너'라는 중장기 비전을 선포하고 그룹 통합 사회공헌 체계 구축과 함께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공헌 중심 분야인 드림무브는 청년 및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과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5060세대인 신중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사회와 경영권을 분리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해의 기업처럼 국내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의 이익 극대화에만 관심을 갖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00 PLUS

메트로신문 '2019 100세 플러스 포럼' '풍족한 노후' 재테크 토크쇼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8일(목) '2019 100세 플러스 포럼'을 개최합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국내의 경제는 올해도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 터널이 길어지면서 경기가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100세시대 재테크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장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테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재테크 토크쇼'를 통해 주식과 부동산 재테크 전략, 은퇴와 재테크에 대해 토론합니다. 불확실성 시대의 주식 투자전략과 다양한 규제 속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치투자'로 유명한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재원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 푹부러진 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유명한 안명숙 우리은행 WM자산센터 부장 등이 알토티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이날 '100세 플러스 포럼-재테크 토크쇼'에서 재테크 전략을 찾길 기대합니다.

행사명 : 2019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
주 제 : 100세시대 재테크 전략
일 시 : 3월 28일(목) 08:30~13:00 (VIP 티타임 08:30~08:55)
장 소 :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지하 1층 그랜드홀 문의 및 참가 신청 :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주 최 : 메트로신문

끊이지 않는 인사 논란 文 정부 관치금융 우려

바른미래당 전수조사 상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이른바 '캠코더 인사'로 불린다. '캠코더 인사'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인사-여권 성향 시민단체 인사(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이들은 금융·산업계 공공기관에 스며들고 있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공공기관인 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총 임원진 중 캠코더 인사의 비율(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까지)은 70%를 육박한다. 그래서인지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산업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작년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사이에 5명의 캠코더 인사들이 대거 자리를 잡았다. 바른미래당이 작년 9월 공개한 1차 전수조사 때 한국가스공사 내 캠코더 낙하산 움직임은 없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공공기관 기관장을 비롯해 상·비상임이사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작년 말(12월31일 기준)까지 340개 공공기관에 총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강행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간 하루에 한 명이

제2벤처붐 일으킨다... 4년간 12조 펀드 조성

정부, 벤처 확산전략 발표 文 대통령 '디캠프' 방문 "유니콘 기업 20개로 확대"

제2 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내놨다.

2022년까지 '스케일업(Scale-Up) 펀드' 12조원 규모 조성,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 및 스톡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비과세 혜택 연간 3000만원으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벤처기업 창업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4단계 기업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친화적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서 앞서 입주기업 대표 및 종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4+1 전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포용 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역삼동 디캠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는 대형 전용 펀드를 조성해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

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을 키우고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M&A(인수·합병) 시장의 확대도 중요하다"며 "정부는 M&A를 통해 창업자·투자자가 돈을 벌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한 스케일업 전용펀드는 모태펀드와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운영한다.

또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등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도입에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